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6일 화요일 음 8월 11일 (3월)

한라칼럼

기상정보

흐리고 비



제주는 흐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4℃, 낮 최고기온은 26~28℃로 예상된다. 대부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80%	제주	0%
60%	성산	0%
60%	고산	0%
60%	서귀포	0%

해돋이 06:11 해질 18:53	달뜨기 16:10 달지기 00:52
물때 만조 06:34 20:28	간조 01:42 13:10

식중독지수 경고 자외선지수 매우높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 많음 21/28℃  
모레 구름 많음 22/28℃

월드뉴스

파키스탄 최대 담수호 '필사의 물빼기'

만차호로 위험 수위 도달

최악의 몬순 우기 홍수로 시름하고 있는 파키스탄이 최대 담수호의 범람을 막기 위해 '필사의 물빼기 작업'을 벌이고 있다.

5일(현지시간) 돈(DAWN) 등 파키스탄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남부 신드주 당국은 전날 위험 수위에 도달한 만차호의 제방에 구멍을 내 물을 빼고 있다.

당국은 이대로 물이 차올라 만차호가 범람할 경우 인근 세흐완시 등에 사는 주민 50만명 이상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파키스탄 최대 담수호로 저수용으로 활용되는 만차호는 건기 때는 200㎞로 줄고 우기 때는 500㎞ 정도로 확장된다.

만차호의 물을 빼면 이미 물에 잠긴 인근 조히, 매하르 지역의 수



위험 수위에 도달한 파키스탄 만차호. 연합뉴스

위도 낮아질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다만, 인위적으로 새롭게 물길을 내면 12만5000명이 사는 다른 지역 주민이 수해를 입게 된다.

물빼기로 인해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이는 지역 주민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다.

신드주 공보부 장관인 샤르질 메몬은 "이번 조치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세흐완 등을 보호하기 위해 내려졌다"며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인사(人事)에서 '참신함'이란 옛볼 수 없으니



김병준 논설실장

늘 그렇듯이 지도자가 바뀌면 선택 수밖에 없다. 뭔가 새롭고, 달라진 모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희망'을 걸 수 있어서다. 물론 지도자가 들어섰다고 당장 달라질 것은 없다.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내놓을게 뭐가 있겠는가. 그나마 지도자가 분명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것은 '인사'다.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인사가 아닌가. 사람을 잘 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인사

문제로 내놓은 점수까지 다 까먹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기대가 얼마나 컸는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서, 전임 정권과 대비되면서 더 그랬을 것이다. 취임한지 닷새가 되고 있으나 새 정부에 대한 희망은 커녕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인사에서 윤 대통령의 큰 자산인 공정과 상식을 옛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 편중 인사에서부터 사적 채용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바닥으로 끌어내린 가장 큰 이유다.

그렇다면 오영훈 제주도정은 어떤가. 역시 인사문제로 시끄럽다. 첫 단행한 개방형직위 인사부터 그랜드 투어가 끝나자마자 나돌기 시작한 인사들이 시중의 풍문대로 척척 들어맞았다.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정무부지사 인사가 그것이다. 공모 형식을 거쳤지만 사전 내정설이 사실로 나타났다. 인사 발표로 조용할 날이 없다. 인사 청문회에서 행정시장은 하나같이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도민사회의 싸늘한 여론에도 이들이 임명되면서 반발이 커졌다. 농민단체가 고발하면서 두 시장은 결국 경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이제 오 도정이 출범한지 두달이 지났지만 뭘 했는지 모른다. 도민들에게 보여준게 뭐냐는 것이다. 제주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목표나 비전을 제시했는가. 오 도정이 꿈꾸는 미래비전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저 인사문제만이 귀를 따갑게 했다. 보은인사 논란은 이들로 끝나지 않았다. 경제통상진흥원장·서울본부장·공보관·정무특보 등 죄다 선거캠프 출신이

다. 더욱 가관은 경제통상진흥원장의 경우 27년 전 실무경험을 중시해 발탁했다. 고작 6개월의 짧은 경력까지 들먹이며 임명할 정도니 안쓰럽기 그지 없다.

새삼 오 지사의 취임사를 들춰보지 않을 수 없다. 의미있는 화두들이 있었다. 제약적 권력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일하는 도정을 위해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천명한 약속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전문가를 얹어도 모자랄 판에 선거공신으로 자리를 채우기에 바쁘다. 인사를 보면 오 도정에 대한 희망은 받을 수 없다. 오 도정의 4년이 짧느냐, 길어지느냐는 인사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잖는가. 바로 인사에서 젊은 도지사다운 '참신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실망스럽다.

그렇다면 오영훈 제주도정은 어떤가. 역시 인사문제로 시끄럽다. 첫 단행한 개방형직위 인사부터 그랜드 투어가 끝나자마자 나돌기 시작한 인사들이 시중의 풍문대로 척척 들어맞았다. 제주시장과

열린마당

세계적인 바이오기업의 탄생을 기대하며



한진호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주요 선진국들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의약품 개발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미래에는 바이오헬스분야가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떠오를 것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제주의 바이오산업은 주로 농산물 등 식물자원을 활용한 식품분야 바이오산업이 주를 이루었고 타 지역에 비해 연구개발이나 산업화지원 인프라가 약했다고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최근 몇 년간 국비사업을 통해 기능성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오동길 서귀포시 대동동주민센터

추석을 우리 고유의 표현으로는 '한가위'라고도 부른다. '한가위'의 '가위'는 음력 8월 또는 가을 한가운데를 의미하며 '한'은 어떤 날 앞을 붙어서 크다는 뜻을 더해 주는 우리의 고유의 말이다. 그래서 한가위는 음력 8월 또는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라고 의미를 풀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와 고물가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석이 돌아오면 마음부터가 넉넉해진다. 서귀포시에서도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코로나19

예방체계 구축 및 재난안전관리, 비상진료·감염병 예방, 교통 시민 불편해소, 생활쓰레기 처리, 물가 안정 대책 마련 등 7개 분야로 서귀포시는 28개 부서, 539명을 투입한다.

또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긴급 대응체제도 유지한다. 3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운영하는 등 안전을 기할 계획이다.

예로부터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했다. 고향의 넉넉한 인심을 느끼며 희망을 그릴 수 있어서다. 올 추석 명절은 자녀와 손자 손녀, 그리고 친지들이 모여 정담을 나누는 훈훈한 사람 냄새가 나는 따뜻한 추석을 기대하며 서귀포시도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드린다.

**한리일보** 제주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건일 편집국장 이윤형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성 및 고품질 포트묘목 공급]

**포트묘목** ▶ 전부터 형상과 뿌리손상 방지 미수익시간 단축 ▶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육묘시 작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에 종자를 파종해서 키운묘를 말합니다. 이식을 하지 않아 뿌리손상이 적고 전부터 형상에 좋으며 미수익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궁천 유라조생 / 흥진 / 하갈 / 금갈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사랑향 / 제라몬 / 미니향

푸른지게장원농장은 종자등록국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푸른지게농업회사법인(주)장원농장

제1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술리 3083 / 제2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술리 2998  
종자등록번호 제18-2013-20-01호

**010-4450-4316 / 010-6550-4316**

**감귤묘목 분양**

**※ 만감류**

- 윈터프린스 1년생
- 카라향 1년생 ● 황금향 1년생
- 천혜향 1년생 ● 레드향 1~2년생
- 한라봉 1년생 ● 탐나는봉 2년생
- 미니향 2년생 ● 레몬3년생,
- 제라몬2년생 ● 미니몬1년생
- 하갈(아마나스)1~4년생

**※ 극조생 & 조생**

- 궁천조생1~3년생 ● 유라조생1~2년생
- 하례조생 1년생 ● 히노야까지 3년생
- 오히라베니와세(궁천변이) 1년생

**※ 포트묘목**

- 유라조생, 윈터프린스, 레드향, 한라봉 외

**※ 탱자묘목**

민성종묘는 종자등록국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강정동465-1, 1013-1, 2327-1 하예동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010-8948-1082**

**감귤 신품종 분양**

**2023년 봄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특호), 황금향, 윈터프린스, 한라봉, 사랑향(천혜향신품종), 탐나는봉, 카라향, 탐맛1호, 명유자, 아마나스, 레몬, 뽕자1~2년생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히라베니(궁천변이), 유라실생  
[유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2년생 본당 1만원 특별분양 선착순]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수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콘도로번)

종자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관리자 : 010-9480-1564)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4~5년생**

- 윈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대)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